

## 제 7 장

### - 왕의 시편 -

왕정은 선지자 및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주요한 제도였다.<sup>1)</sup> 왕권의 중요성은 열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창 17:6), 왕의 처신에 대한 율법 규정 (신 17:14-20), 역사서에 기록된 왕권의 성립과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권은 다윗 시대와 초창기 솔로몬 통치 시대에 그 절정을 이룬다. 다윗 왕조의 신학적 기초는 다윗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다 (삼하 7). 왕과 그 통치와 관련된 사상은 시편 속에서 선지자 직분이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사상들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며, 이것은 사실 이상할 것이 없다.<sup>2)</sup> 시편 신학의 핵심 속에는 왕권 사상으로 인간 왕과 왕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다. 제임스 메이즈는 ‘주 야훼의 통치’는 시편 신학을 구성하는 비유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여 백성과 왕, 땅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시편의 모든 기능과 주제가 하나님이 발휘하는 적극적인 주권의 형태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왕권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현재의 현실에서도 중요하지만 왕의 통치와 관련된 사상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상을 이루는 핵심이다.<sup>4)</sup> 바벨론 포로기의 왕권 상실은 다윗 계열의 후손들이 왕권을 유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 왕의 시편은 다윗 왕조가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품게 만든다.<sup>5)</sup>

왕의 시편은 특정한 구조보다는 내용으로 정의된다.<sup>6)</sup> 비록 어떤 시편들이 왕의 시편 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다음의 시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72편, 89편, 101편, 110

편, 132편, 144편.<sup>7)</sup> 왕권은 왕의 시편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주제이다.<sup>8)</sup> 많은 왕의 시편들이 특별히 ‘그 왕’ (2, 18, 20, 21, 45, 72, 89편)을 언급하거나, 때로는 그 왕을 ‘기름부음 받은 이’ (2, 18, 20, 45, 89, 132편)로 부른다.<sup>9)</sup> 만약 그 왕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와 관련된 개념과 활동을 언급한다. 이를테면 그 왕이 원수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나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행위 등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왕의 시편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들 시편 자체가 그 왕의 활동들 (왕의 대관식 [2편, 110편], 왕의 혼인잔치 [45편], 전쟁 관련 문제들 [18, 20, 144편]<sup>10)</sup>, 의와 공의에 따른 통치 [72, 101편], 다윗 언약과 얽혀있는 약속들 [89, 132편])과 관련된 상황들을 반영한다.

### **왕의 시편, 역사 속의 왕, 메시아**

왕의 시편에서 주요한 문제는 시편과 역사 속의 왕, 혹은 역사 속 상황 사이의 관련성이다. 이 문제는 특별히 직접적인 메시아 시편들 (특히 2편과 110편)이라 여겨지는 왕의 시편과 관련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벗어나는 진술들이 이들 시편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2:8은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이 (메시아)인 왕에게 땅 끝까지 유업으로 주겠다고 진술한다.<sup>11)</sup>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확장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우주적 통치에 대한 진술과 실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긴 역사적 발자취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왕의 시편을 논하는 배경지식으로서 이 의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개괄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첫째, 시편 2:8의 진술은 고대 근동 왕실의 전형적인 표현방식이라는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과장법을 사용하여 왕조의 통치권을 묘사한다.<sup>12)</sup> 이와 같은 해석은 열국의 신들과 창조주요 세상의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 야훼의 대표자이므

로, 우주적 통치에 관한 진술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야훼의 우주적 통치에 관한 역사적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제국이었고, 그로 인해 왕국이 더 크게 확장되길 바라는 역사적 소망을 품게 하였다.<sup>13)</sup>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따라서 이들 시편에 등장하는 과장된 진술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할 때 참이지만, 이 연결 관계에는 계시와 그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신적 저자가 필요하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제시되는 해결책은 미래 중심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편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미래 중심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가 배제하는 까닭은 그와 같은 개념이 후대에 발달하여 덧입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므로 그를 대리하는 지상의 왕이 관할하는 범위는 전지구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왕정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왕권에 대해 급진적인 사고를 하였다.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들이 ‘기름부음 받은 이’ 개념에 덧붙여졌다는 말이다. 시편 2편의 경우 본래의 의미는 분명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메시아 개념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 것이다.<sup>14)</sup> 이 관점은 시편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강조한다는 점과 시편의 의미 발달에 영향을 끼쳤을 이스라엘 역사의 변천과정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시편의 원의(原意)와 나중에 그 시편에 부여된 메시아적·종말론적 의미 사이를 자꾸 분리하려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2장을 참조).<sup>15)</sup> 어떤 학자는 이 메시아적 의미가 언제나 원래 의미에서 타당하게 발달한 것인지에 의구심을 품는다. 즉, 그것은 단지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 일뿐이라고 보는 것이다.<sup>16)</sup>

시편 2:8과 같은 보편 보편적 진술과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실

제 역사 사이의 긴장관계를 다루는 또다른 방식으로는 모형론이 있다. 모형론은 어떤 개인, 사건, 제도 등은 후일에 일어날 사건들, 사람들, 제도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나 모범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행한 방식 (모형)은 신약시대에 그가 성취할 일들의 방식을 보여주는 토대라는 것 (본형)이다. 모형론의 뿌리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이이므로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서 성취될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역사관이다 (그러므로 신적 저자가 중요한 것이다).<sup>17)</sup> 모형과 본형의 관계는 임의적 관계가 아니다.<sup>18)</sup> 어떤 텍스트의 본래적이고 역사적 의미와 이후에 부여된 의미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가 포로기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계시의 심화를 거치면서 발달한 것이다.<sup>19)</sup>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구약의 왕정체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상황과 배치되는 진술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주적 왕국의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에 담긴 ‘궁극적’ 하나님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메시아 도래의 관점으로 이어질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칼빈은 임시적인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가 세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증표라고 말한다.<sup>21)</sup> 그는 구약과 시편을 해석하는데 그리스도와 신약으로 너무 성급하게 건너뛰는 것을 경계하였지만, 시편 2편을 해석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신약의 관련성을 언급한다.

끝으로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시편의 보편적 진술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데 접근법에는 시편의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아적이고 예언적인 진술,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진술이라고 보는 방식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시편 2편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몇몇 시편의 진술들, 이를테면 왕의 통치가 보여주는 본질이나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등의 진술들은 어떤 지상의 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 적용할 수 있다.<sup>22)</sup> 신약이 시편 16편을 다루는 방식이나 확고하게 다윗을 선지자로 기술한 것 (행 2:29-32)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증거로 볼 수 있다.<sup>23)</sup> 만약 사도행전 2:29-32에서 다윗과 시편 16편에 관해 베드로가 진술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편, 혹은 어떤 시편의 진술이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인지 아닌지는 개별 시편의 특성을 고려하며 살펴볼 사항이다.

### **왕의 시편과 다윗 언약**

왕의 시편을 이해하는 최상의 접근법은 시편이 왕정체제의 역사적 배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특히 다윗 언약의 개념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윗 언약 속에는 주 야훼의 집을 건축할 다윗의 자손 (씨)에 대한 약속, 주 야훼와 그 후손 사이에 아버지-아들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약속, 영원한 집 혹은 왕조에 대한 약속,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 등 (삼하 7:12-16)의 사상이 핵심을 이룬다. 이런 사상은 왕이 베푸는 하사 언약<sup>royal grant covenant</sup>를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위대한 왕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다른 왕에게 복을 내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맺는 언약을 이룬다. 이 언약에는 영속하는 왕조를 소유할 권리,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의무, 아버지-아들 관계의 성립 등을 포함한다. 언약을 하사받은 왕은 ‘종’이자 ‘아들’로 묘사된다.<sup>24)</sup> 이 사상은 아하스와 앓수르 왕 사이의 언약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왕하 16:7). 그러므로 다윗 계열의 왕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으며, 그 왕은 다윗 언약에 담겨있는 복과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sup>25)</sup> 매우 놀라운 점은 왕과 하나님 사이를 밀접한 관계로 묘사하는 왕의 시편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곧 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왕의 행동과 하나님 행동 사이의 병행관

계를 통해 왕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시편 45편, 89편, 110편 등에서 그 병행관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시편 45편에 내재하는 문제점 중 하나를 그 병행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행동은 진정 신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들이 설명 가능해진다.

이번 장에서 논의되는 왕의 시편들은 전체 시편의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윗 계열의 왕들과 연관된 초기의 이상적 바람(시 2, 45, 72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겪고(시 89편) 왕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그만 퇴색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모든 원수를 퇴패시키고 한 왕이 일어날 것이고, (시 110편)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시 132편). 또한 이 왕은 최후의 종말론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시 144편).<sup>26)</sup> 이들 왕의 시편 모두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시편 2편은 왕과 하나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그 왕은 바로 열방을 통치할 아들인 것이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과 관련 있는데, 왕의 혼인은 왕국에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관계를 함의한다. 시편 72편은 왕의 의로운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한다. 시편 89편은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슬퍼하며 하나님에게 다윗과 맺은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시편 110편은 왕이 원수에게 승리를 쟁취한 것을 송축하는 이야기이다. 시편 132편은 시온에 왕의 통치를 세우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지를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은 왕이 이를 궁극적 승리에 대해 말한다. 왕의 시편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모형론적 관계를 맺고 있다(2, 45, 72, 89, 132, 144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하며 시편 2편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 시편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sup>27)</sup> 110편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편인데, 왜냐하면 독특하게도 한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 역할을 결합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 시편 2편: 기름부음 받은 이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

비록 시편 2편이 아주 간단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존재한다. 학자들 중 일부는 1절에서 기술하는 열방의 반역 행위에 부합하는 상황을 찾으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sup>28)</sup> 또다른 학자들은 시편 2편의 개념들을 왕의 즉위식이나 그 즉위식의 축하연과 관련 짓는다.<sup>29)</sup> 하지만 구약에는 왕의 즉위식을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즉위식에 대한 묘사도 제각각이다.<sup>30)</sup> 시편 2편을 왕의 즉위식 행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염두해 두고 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이름과 왕국의 위대함이 천명되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다윗 계열의 왕권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진다.<sup>31)</sup> 또한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인 ‘그 기름부음 받은 이’와 일치한다 (시 2:2).<sup>32)</sup> 그러므로 시편 2편의 확신에 찬 진술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다윗 계열의 어떤 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다윗 왕국과 같은 공고한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시 2:8).

다윗 언약이 보여주는 약속을 성취한 구약의 왕은 없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만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말미암아 왕조는 종말을 맞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윗이 받은 약속에 대한 소망은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었다. 전체 시편 1-3권의 위치는 왕권과 다윗 계열의 소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1장을 보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묵상하는 **개인의** 복된 삶을 강조한다. 반면 시편 2편은 열방들의 관계 속에서 다윗 계열의 왕권에 대한 언약적 약속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통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33)</sup> 이것은 설령 전체 시편 후반부에서 다윗 언약이 큰 위기에 빠진 듯이 말하고 있을지라도 (시 89편)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확고부동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왕을 통해 통치할 것이다.

시편 2편의 구조는 하나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 그 왕국을 세우리라는 기본 메시지를 지지한다. 첫 번째 부분 (vv. 1-3)은 하나님과 그 기름부음 받은 왕에게 반역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열방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편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질문은 열방의 허망한 노력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다.<sup>34)</sup> 열방의 계략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흉포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갖은 짓을 한다 해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두 번째 부분 (vv. 4-6)에 나온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잘 것 없는 시도에 비웃고, 허탄한 노력을 조롱하며, 분노에 찬 심판을 선언한다. 하늘 보좌에 앉은 이는 견고한 모습으로 그들의 반역에 굴복하지 않는다.<sup>35)</sup>

세 번째 부분 (vv. 7-9)에서는 기름부음 받은 왕이 직접 이르기를 주 야훼의 뜻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정의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삼하 7:14).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맺은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sup>36)</sup>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핵심은 아들됨이라는 특별한 관계인데, 이것은 애굽의 경우와 달리 육체적이거나 신화적 관계가 아니며,<sup>37)</sup> 많은 사람들이 양자됨으로 표현하는 법적 관계를 뜻한다.<sup>38)</sup>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sup>39)</sup>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대표하게 된다. 이스



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심지어 장자라고까지 불렸다 (출 4:22). 그리고 시내 산에서는 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장막에 거하며 왕으로 거한다. 야훼는 전장의 선봉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민 10:35-36) 대적들을 퇴패시켰다.<sup>40)</sup> 또한 야훼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인 왕은 백성을 전투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창조주요 열방의 통치자를 대신하는 왕은 열방의 통치라는 유업을 받는 인물이다 (v. 8). 아들과 장자 (시 89:27)라는 말을 왕이나 백성 모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왕은 또한 백성을 상징한다. 다른 왕의 시편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왕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다. 열방을 통치할 왕 (v. 9)이란 열방을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이 승리하리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왕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온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시편 2편 마지막 부분 (vv. 10-12)은 하나님이 열방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로서 기름부어 세운 왕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야훼의 포고령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현명하게 처신하여 그 왕을 통한 야훼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해야 한다.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복종하는 자들은 크나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v. 12).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한 통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시편 2편의 개념을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의 관점에서 다윗 계열의 왕과 결부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다윗 계열의 왕이 통치하던 어떤 시대에도 성취되지 않았고, 오히려 왕조는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약속의 성취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계열의 왕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 기름부음 받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은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기름부

음 받고 부름 받은 예수 (행 4:27)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편 2편이 내포하는 뜻 중에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 행위도 있다.<sup>41)</sup> 초대교회는 시편 2:1-6에서 말하는 동일한 확신을 표현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왕에 대한 음모와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능력을 부여하였고 (행 4:31) 설교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다. 반대하는 자들이 들끓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왕의 이름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통치를 수립해 나간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확언한다. 예수는 회개를 요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했다.<sup>42)</sup> 통치자들에게 현명하게 판단하여 왕의 다스림에 복종하라는 경고는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몇몇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어쩌면 시편 2편은 예수가 세례를 받은 사건 (마 3:17; 막 1:9-11; 눅 3:21-22)과 변화산에서 들려온 확인,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마 17:1-8; 막 9:2-8)는 소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울은 시편 2:7을 특별히 인용하여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말한다 (행 13:30-33).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들됨의 선언<sup>43)</sup>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테지만, 그 세례가 아들됨이 구약에서 다윗 계열의 인간 왕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비록 예수는 율법 성취의 일부로서 정결해져야 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공적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스스로는 정결해질 필요가 없는 신분이다 (마 3:11-14).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대신 성령이 직접 예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임재한다 (3:6).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는 공개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sup>44)</sup>로 선언되고, 그 인성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역할 준비를 하

는 것<sup>45</sup>)이다. 이 날 바로 예수는 왕과 아들로 공적인 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왕권의 본질은 이사야 42:1-4 ('내가 기뻐하는 자')를 통한 암시에서 알 수 있는데, 이 구약 본문에서 이사야가 언급하는 좋은 메시아의 권위와 고난 받는 종이라는 특징을 겸비한 인물로서<sup>46</sup>) 예수와 연결된다. 변화산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선언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장막 셋을 짓고 싶다고 말한다.<sup>47</sup>) 하지만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그 지위가 동일하지 않다. 그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사람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는 정당한 권한을 소유한 아들로써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인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예수는 백성들이 바라던 종류의 아들이나 왕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됨이나 왕권은 조롱받았으며 그가 받은 고난 때문에 의식을 샀다 (마 27:40-43). 그러나 죄와 사망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자리에서 그 아들됨과 왕권을 변호받는다 (행 13:38). 바울이 로마서 1:4을 통해 확증했듯이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sup>48</sup>). 예수에 대한 언급과 그가 성취한 일은 그 어떤 인간 왕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예수 탄생의 독특성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해 주는 특징이다 (눅 1:35). 귀신들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으며 (마 8:28; 막 3:11),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였다 (마 14:33).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일어났던 범상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마 27:57; 막 15:39). 요한복음에 따르면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하나님이므로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요 5:25).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참조하였다 (요

10:36). 예수가 자신을 먼저 알아본 것을 보고 나다니엘은 그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요 1:49)라 소리치며 그의 아들됨과 왕권을 동시에 언급했다. 히브리서 1:5은 시편 2:7을 인용하여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보통 인간의 아들됨을 능가하는 방식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오른편 앉아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히 1:4). 비록 예수는 인간이 짊어질 본래의 운명을 수행하기 위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지만 (시 8:4-6; 히 2:6-8), 천사보다 우월하며 신성의 측면에서 범상한 인간을 뛰어넘는다.

어떤 이들은 열방을 소유하고 질그릇처럼 깨뜨릴 구약의 왕에 대한 묘사와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보려 하지만,<sup>49)</sup> 초림하여 감당한 고난의 사역으로만 예수를 제한하려 하면 그가 소유한 왕권의 전체 묘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귀신들을 내쫓을 때나 재판정에서 유대와 이방 지도자들에게 응대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가 초림했을 때에도 그의 권세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물려받을 기업의 일부가 될 열방들에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마 28:19-20).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지금도 통치한다. 그러므로 만유가 다 그의 발 아래에 놓여있는 것이다 (엡 1:20-23). 그러나 그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은 예수의 통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15에 살짝 숨어있는 시편 2:9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계시록 19:15에서 예수는 열방을 무너뜨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는 전능한 왕으로 임한다. 그는 열방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나라는 세상 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복을 받아 멸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시편 2:9에서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그 표현들이 왕의 왕 예수의 통치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 19:15)). 그 뿐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신실했던 자들에게도 이 표현은 적용된다. 그리스도를 좇아 승리한 그들은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철장으로 통치할 것이다 (계 2:26-27).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세계와 하나님에 대항했던 모든 것을 거느릴 자신들의 참된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구약에서 ‘아들’은 야훼와 맺은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 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에게 적용할 경우 거기에는 신성적 의미가 더해진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2편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윗을 선지자로 소개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구약적 맥락 속에서 시편 2편을 이해하려 할 때 방해가 된다. 또다른 학자들은 시편 2편을 예수님과 모형론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임시적인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모형한다고 이해한다.<sup>51)</sup> 반그로닝겐 Van Groningen은 ‘아들’의 개념을 모형론적 방식으로 이해한다. 아들-왕이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그 아들-왕은 신성을 상징하고, 인간 왕을 통해 그 신성 자체가 드러난다. 인간 왕은 야훼의 현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다. 왕은 미래에 온전히 실현될 것의 상징이자 모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sup>52)</sup> 모형론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나 왕권과 같은 제도 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모형론은 시편 2편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다.

하지만, ‘아들’ 개념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면 대개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에 집중하여 살펴야 한다. 아들의 의미는 시편 2편에서 사용된 아들이란 말과 그 말이 예수와 관련될 때의 의미 사이에서 발전했을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백성의 대표였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왕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원수에 대한 승리를 하사한다. 그와 같은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의 초기 통치기에 잠깐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 왕의 실패는 이전과는 다른 아들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한 아들이 우주적 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선언을 담은 구절(사 9:6-7; 11:1-10)이 아하스 왕이 야훼에 대한 신뢰를 버린 후 (사 7장)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사야 뒷부분에서 이전과 다른 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이전과 다른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사 9:6)으로 불리는 아들인 것이다. 다윗은 1권-3권에 있는 많은 시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시편이 그가 지었거나 그 왕권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며, 그것은 역사적 맥락 안에 있는 시편의 주제이다. 왕조의 패망으로 인해 다윗 왕권은 의로 통치할 왕, 땅 끝까지 차지할 아들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낳았다. 완성된 전체 시편에 담긴 왕의 시편은 이런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며, 왕에 대한 언급은 전체 시편의 마지막 맥락 내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아들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구약에서 아들이 의미했던 모든 것을 성취할 아들이요, 인간 왕을 능가하는 아들인 것이다.

### 시편 45편: 왕의 혼인잔치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잔치를 둘러싼 화려한 묘사들로 가득하다. 이 혼인잔치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행사였다.<sup>53)</sup> 따라서 이 시편이 역사적인 특정 왕의 혼인식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시편 45편은 왕을 언급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v. 1), 신랑과 신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이룬다. 도입부인 1절 이후에는 신랑 왕을 찬양하는 내용 (vv. 2-9), 신부를 설명하는 내용 (vv. 10-16), 이 왕가의 결합에서 비롯될 미래의 축복에 대한 내용 (vv. 16-17) 등이 이어진다. 왕은 은혜로운 언사를 포함한 반듯한 품행 (v. 2)<sup>54)</sup>과 진리에 근거를 둔 군사적 승리 (vv. 3-5), 화려하게 펼쳐지는 혼인 행사 (vv. 8-9) 등

의 이유로 찬양을 받는다. 신부는 남편 왕에게 순응하는 법을 배운 후 (vv. 10-12), 아름답게 한껏 치장하고 동무 처녀들과 함께 왕에게 인도된다 (vv. 13-15). 신부가 받은 가르침 중에는 자기 백성을 잊지 말라는 권고, 왕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는 짙막한 진술, 신부의 입장에서 경험할 복 등이 들어있다. 그 복은 두로 사람들로 상징되는 백성 중 부요한 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sup>55)</sup> 왕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장차 왕의 아들들이 그 열조를 계승하여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되고, 만세로 왕의 이름이 기억되며, 만민이 왕을 찬송하는 복이 미래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45편은 한 이스라엘 왕의 혼인식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56)</sup>

시편 45편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 구절들은 마치 왕이 하나님 (엘로힘)과 같은 존재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 진술은 이미 언급된 인물이나 주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왕의 승리를 송축하는 중에 등장한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왕이 의를 위하여 승전하기를 기원하는데, 7절에서는 ‘왕이 정의를 사랑한다’고 묘사된다. 5절은 왕이 원수를 이기고 군사적 승리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만약 이 시편이 왕의 혼인잔치를 위한 노래이고 이 구절들이 왕에 대하여 언급하는 맥락이라면, 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방책들이 제시된다. 그 첫 번째 방책은 6절 상반절이 일으키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크라우스<sup>Kraus</sup>는 이 구절을 ‘신성한 이여, 그대의 보좌가 your throne, O divine one’라고 번역하며 ‘엘로힘’이 다윗 계열의 왕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왕이 하나님이 양자 삼은 아들로 묘사되며, 사무엘하 14:17 절에 나오듯이<sup>57)</sup> 일부 구약성경에서 왕을 주 야훼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크라우스는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엘로힘’을 왕에게 사용한 적 없고 왕을 신격화하는 행위는 이

스라엘의 기본적 신앙에 배치됨을 인정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엘로힘’이 왕 자체보다는 그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NEB는 그 문구를 ‘왕의 보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같도다’로 번역하였고, RSV는 ‘왕의 신성한 보좌’로 번역한다.<sup>58)</sup> 크레이기 Craigie의 지지를 받는 미첼 다후드 Mitchell Dahood는 명사 구 ‘왕의 보좌’를 취한 후 이를 동사 구로 변형시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왕을 그 보좌에 앉히셨도다’로 번역한다. 크레이기는 이 번역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왕이므로 시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번역이 해당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한다.<sup>59)</sup>

시편 45:6절에 대한 위와 같은 대부분의 해석은 왕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나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최상이다.<sup>60)</sup> 이것은 모든 고대 판본을 따르는 번역이며,<sup>61)</sup> NASB, NKJV, NIV, ESV 등의 영어역본들이 이 번역을 따랐다. 하지만 45편의 맥락 내에서 이 번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서 지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을 묘사된 적이 있으므로 이 어휘가 인간 왕에게 적용되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출 21:6; 22:7; 시 138:1). 이런 관점에서는 왕을 ‘엘로힘’과 거의 마찬가지로 규정하므로 그와 같은 신적 호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sup>62)</sup> 이렇게 왕을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하나님과 왕의 친밀한 관계는 왕을 통해 완벽하게 현실화하거나,<sup>63)</sup> 왕은 (본질적으로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를 받은 자로 묘사된다.<sup>64)</sup> 혹은 그를 사무엘하 7:13의 약속을 반영하는 메시아와 왕의 역할로 설명하며 ‘엘로힘’으로 언급한다.<sup>65)</sup> ‘엘로힘’을 인간 왕에게 적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계속해서 7절이 인간 왕이 ‘엘로힘’에 종속되어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말한다.<sup>66)</sup> 45:6을 번역하려드는 사람들, 즉 ‘엘로힘’이란 어휘를 다윗 계열의 왕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시편 45편에는



그 본래적·역사적 맥락에는 메시아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델리치는 메시아 예언이 시편 45편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고 주석한다.<sup>67)</sup> 크레이기는 메시아 관련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며 그 본래 맥락 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언급한다.<sup>68)</sup> 반 그로닝겐은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시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69)</sup> 만약 이 시편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메시아와 상관 없다면, 그 메시아 관련 의미는 나중에 발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델리치는 메시아 관련 의미는 매우 오래된 관점이며 시편 기자는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왕과 메시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70)</sup> 많은 사람들은 다윗 언약이 재해석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장되던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해 두면서 시편 45편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본다. 장차 임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인데,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메시아를 바라고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45편과 같은 여러 많은 시편들을 이와 같이 메시아와 관련시켜 재해석했다.<sup>71)</sup>

또다른 학자들은 시편 45:6-7의 본래 의미는 메시아적이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솔로몬과 그의 왕국이라 말하면서도 모형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속하는 왕국이 강조되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엘로힘’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점 때문이다.<sup>72)</sup>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직접 예언한다고 주장한다. 시편 45편의 내용에 부합하는 왕의 혼인식이나 지상 왕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73)</sup> 하먼 Allan M. Harman은 시편 기자가 메시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예표하는 다윗 계열 통치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편 45편 속에 갑작스럽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사야 9:6-7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메시아적 요소를 소개하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고 믿는다.<sup>74)</sup>

시편 45:6-7이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은 45:6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모형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처음 접한 청중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근거 위에서 모형론을 주장한다. 만약 6절의 엘로힘이 그리스도를 직접 예언하는 어휘라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래의 맥락 속에서 메시아적 의미가 없다는 관점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편의 본래적이고 메시아와 관련이 없는 의미와 나중에 부여된 메시아 관련 의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월슨은 시편 45편에 묘사되는 군사 행동의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체는 하나님인가, 왕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sup>75)</sup> 보좌는 왕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대상 29:23). 전장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왕이지만,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이는 야훼이다. 왕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왕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6절이 바로 이와 같은 예이며, 7절이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라 기술하며 다시 왕에게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 속의 의미는 메시아적 의미를 위한 기반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의 의미에서 발달하는 것이다.<sup>76)</sup> 히브리서 1:6-7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인간인 왕으로 도래하는 것은 45:6을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45:6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지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왕의 혼인식 행사를 왕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 사이의 관계로 보는 모형론적 접근법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호 1-3) 및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 (엡 5:22-23)를 말하기 위해 혼인 서약의 개념을 사용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마 9:14-17) 예수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신랑이 있는 상황에서 혼인 하객들이 슬퍼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말로 답을 한다. 예수의 치유 사역 (마 9-10)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의 안에서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 복된 소식 앞에서 금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 곧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날이 되면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다.<sup>77)</sup> 예수는 자신의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시작하였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그의 두 번째 강림이 이루어질 때이다. 그 때까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받으라는 초대는 지속될 것이다. 예수는 왕의 혼인식 비유를 사용하여 (마 22:1-14)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아야드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으라고 말한다.<sup>78)</sup> 혼인 잔치는 곧 메시아 왕국이요 예복은 왕에게 갖춰야 할 합당한 태도를 상징한다.<sup>79)</sup>

요한계시록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종말의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계 19:6-8). 신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밝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서 크게 기뻐한다. 그리스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며, 자기 앞에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는 교회를 세웠다 (엡 5:26-27). 그리하여 크게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돌리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이 혼인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시편 45편의 왕의 혼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마태복음 22:1-14과 요한계시록 19:6-8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혼인식이 묘사되는데, 잔치의 준비, 초대받는 하객들, 의복과 예복에 대한 강조 등이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19:6-8은 특별히 엄청난 수의 하객들과 잔치에 대한 크나큰 기쁨 등을 강조한다. (마태복음 9:14-17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처음 드러났든, 재림 때 완성되든 (계 19:6-8) 왕과 왕국의 도래는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큰 즐거움과 송축함을 만들어낸다. 혼인 잔치에 신랑인 왕과 신부가 등장한다. 왕은 그 아름다움과 은혜로운 말로 인해 칭송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수려한 외모 때문에 칭송을 받

긴 하지만 (삼상 9:2; 17:43),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본적인 이유는 그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삼상 16:7). 왕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복에서 나오는 속성의 내적 특징이 겉으로 발휘된다는 뜻이다 (눅 45:2). 누가복음 2:40과 52절은 예수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은혜와 바꿀 수 있는 단어)을 받았다고 전한다.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사 53:2). 우리 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그가 행한 은혜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시 강림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한계시록 19:11-16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앞장 서 달려오는 왕으로서 마침내 모든 원수를 퇴패시킨다.

신부도 또한 지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신부는 왕에게 충실하고 그의 권세에 순복할 것을 교훈받는다. 바울은 이 개념을 둘이 하나가 되는 혼인의 신비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도입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에게 순복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준비를 한다 (엡 5:22-27). 요한계시록 19:6-8은 신부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은 채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등장한다. 이 부분의 강조점은 바로 교회 자신이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신부를 드러내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시편 45편의 신부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v. 10)은 하나님의 목적이 열방에게 복을 주는데 있다는 구약적 사상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에 잘 들어맞는다 (엡 2:11-22). 이 혼인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고 (시 45:16; 계 3:21), 열방의 찬양을 받으며 (시 45:17; 계 21:26), 영영히 찬송받을 한 이름 (시 45:17; 빌 2:9-10)이 나타

날 것이다. 신랑 왕이 임하는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를 만날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시편 72편: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복

시편 72편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 지상을 통치해 달라는 왕을 위한 기도이다.<sup>80)</sup>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sup>for Solomon</sup>’라는 명칭<sup>81)</sup>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는 후기가 붙어 있으며 시편 2편을 마무리하는 송영으로 끝맺는다.<sup>82)</sup>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이 시편을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은 시라는 것이다.<sup>83)</sup> 시편의 구조가 난해하긴 해도<sup>84)</sup> 그 내용은 왕의 의로운 통치, 특별히 가난한 자와 창조 세계에 대한 의로운 통치로 결과하는 효과에 집중한다. 왕의 의로운 통치는 풍부한 물질적 복을 산출한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각 부분의 처음은 왕을 위한 간구로 시작한다 (1-7, 8-14, 15-19).<sup>85)</sup>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 개의 요청을 중심으로 교차 대구법이 적용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sup>86)</sup>

A 첫 번째 요청 (vv. 1b-c)	하나님, 왕에게 공의를 주소서
B 요청의 근거 (vv. 2-4)	가난한 자를 위한 공의 백성의 형통
C 결과 (vv. 5-7)	주를 두려워 함 의로운 자들의 형통
D 두 번째 요청 (v. 8)	하나님, 왕이 열방을 통치하게 하소서
C <sup>1</sup> 결과 (vv. 9-11)	열왕과 열방이 왕을 섬김
B <sup>1</sup> 이유 (vv. 12-14)	압제 당하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함
A <sup>1</sup> 세 번째 요청 (vv. 15-17)	하나님, 왕에게 장수를 주소서 이 시편의 핵심 사상 요약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왕에게 내려달라는 것이다 (vv. 1b-c).<sup>87)</sup> 공의와 의로움은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된 속성

이며, 왕은 통치하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때 이 공의와 의로움을 그 통치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sup>88)</sup> 두 번째 요청은 왕의 통치가 온 누리로 확장되어 열왕과 열방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vv. 9-11). 세 번째 요청은 왕의 장수이다. 의로 통치하는 왕은 자신의 제국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 왕이 장수하는 것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v. 15).

첫 번째 요청을 진술한 이후에는 그 요청의 근거와 결과 (vv. 2-7)가 제시된다. 왕에게 공의를 허락해 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의로운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고 (v. 2, 4) 백성들에게 번영과 건강함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거의 황무했던 산들마저 백성들을 위해 비옥한 지대가 된다.<sup>89)</sup> 번영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šālôm’ (평화)이며, 이것은 삶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건강함을 강조하는 말이다.<sup>90)</sup>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이며 (v. 6), 그로 인해 백성들은 주 야훼를 두려워하게 된다.<sup>91)</sup> 합당한 통치자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숭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끈다.<sup>92)</sup>

두 번째 요청은 온 땅에 대한 통치권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v. 8). 왕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 모든 열왕이 왕 앞에 부복하고 모든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vv. 9-11) 그리고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구원을 우주적 통치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온 세계 가운데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에게 구원과 구속이 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왕의 장수를 요청한 다음 (v. 15) 창조 세계가 결실하는 복 (v. 16)과 백성 스스로에게 임할 복 (v. 17b)을 바라는 진술이 이어진다. 그런 복을 가져올 왕이 장수와 영원히 불릴 이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vv. 15, 17a).

비록 송영 부분 (vv. 18-19)이 이 시편 구조 상 불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시편 끝부분에 이 송영을 놓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런 일들을 성취할 이이며 전 세계에는 그의 영광으로 가득차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93)</sup>

시편 72편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sup>94)</sup> 시편 속 왕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모형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분명히 솔로몬의 통치라는 실제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sup>95)</sup> 이 시편의 명칭은 솔로몬의 시이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묘사하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할 수 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왕상 3:11), 시편 72편에서 왕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공의이다.<sup>96)</sup>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 그 자체로서 거기에는 그의 통치로 인해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바람이 들어있다. 따라서 시편의 구절들은 원래 왕을 위한 청원인 것이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에는 지혜와 공의가 끼친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솔로몬 왕국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었으며 (4:1-19), 창기인 진짜 어미에게 자식을 찾아주었으며 (3:16-28), 왕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대한 물질적 복을 받았다 (4:20). 시편 72:8은 땅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3:31의 시적 평행 구절로서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약속의 땅 경계 너머로 확장했다.<sup>97)</sup>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영향력은 온 열방 백성들과 지상의 왕들에게 영향을 끼쳐 (4:34) 그 왕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왕국의 번영을 보고받은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바의 여왕 이야기이다 (왕상 10:7). 시바의 여왕은 많은 양의 황금을 들고 방문했는데 (왕상 10:2), 이 장면은 시편 72편 10절과 15절에도 등장한다. 솔로몬의 명성은 땅 끝까지 퍼져나갔으며, 열왕기상의 설명을 통하여 그의 명성이 해와 같이 장구했음 (시 72:17)을 확인할 수 있다. 솔로몬을 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시편 72편의 간구가 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순종하고 자신의 길로 걷는다면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왕상 3:14; 시 72:15). 하지만 솔로몬은 인생 후반기에 주 야훼를 저버리고 말았다 (왕상 11). 솔로몬, 혹은 다른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한 이 기도는 왕국이 사라진 후인 포로기와 해방기에 의미가 더해졌다. 시편 72편은 그 내용 속의 간구들을 성취하기 위해 미래에 나타날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다. 스가랴 9:10에서 시편 72:8을 인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편 72편은 종말론과 메시아에 대해 그 관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sup>98)</sup> 그리스도는 시편 72편의 소망과 기도에 대한 성취이므로 그의 안에서 간구는 현실이 된다.

시편의 진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미 의로운 왕이 임하여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기도하는 것만큼의 기도를 그를 위해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은 그의 것이다 (72:1의 첫 번째 요청; 마 27:19과 요 5:30을 참고하라). 그리스도는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마 11:5) 창조세계에 물질적 풍요라는 복을 베풀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산 위에서 굶주린 자들 5천 명이 음식을 먹은 사건 (시 72:3, 16; 요 6:3)이 있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 사건 (요 6:15)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무리들은 장차 의로운 왕이 임하여 통치하는 것과 물질적 복 사이의 관련성을 인지한 것일까? 어느날 이 의로운 왕은 다시 임하여 (계 19:11)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고통과 슬픔, 죽음을 끝내며 (계 21:4-5), 충만한 생명 (계 22:1-5)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방과 열왕은 왕을 섬기며 그에게 영예를 돌릴 것이다 (계 21:24-26). 이것은 72:8의 두 번째 요청의 성취이다. 72:15의 세 번째 요청은 의로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



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므로 그의 이름은 영영히 불릴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궁토록 복되다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온 땅에 임재할 것이다 (시 72:19). 우리는 어느날 우리 영광의 왕이 돌아올 날을 맞이할 것이다!

### 시편 89편: 고난당하는 왕

시편 89편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실하신 야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vv. 1-18), 두 번째 영역은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을 담은 신탁을 다시 살펴보는 내용이며 (vv. 19-37), 마지막 영역은 왕조가 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받은 약속이 명백하게 실패했다는 현실에 대해 슬퍼하는 내용이다 (vv. 38-51). 89편은 전체 시편 제 3권 (73편-89편)을 갈무리하는 의미의 송영 (v. 52)으로 끝난다. 이 세 개의 영역이 각각 특징이 있고 확연하게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있지만,<sup>99)</sup> 그것은 또 이 시편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편의 핵심적 키워드는 ‘인자의 영원함’ (*ḥesed*)과 ‘성실함’ (*ʿmûnâh*)으로서, 89편 전체에서 7회 등장하며 세 개의 영역 모두에서 볼 수 있다.<sup>100)</sup> 이 찬송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탄하며, 그 신탁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바로 다윗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기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실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언약 공동체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이 성취돼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sup>101)</sup>

시편 89편은 시편 기자가 야훼의 영원한 인자<sup>102)</sup>와 그 성실을 알리고 노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며 시작한다. 2절과 3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서 전개될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한다. 그 두 가지란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그 성실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sup>103)</sup> 찬송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그 성실을 실증하는 규범인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늘과 거룩한 자의 회중이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는지를 보여준다. 시편 89편 신탁의 내용 (vv. 19-37)에서 핵심 용어인 ‘영원한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4, 28, 33절에 ‘영원한 인자’가, 24, 33절에서 ‘성실’이 드러난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흔들림없이 영존하는 창조 세계와 동일한 특징이 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동일한 하나님이 자기의 종 (v. 3) 다윗에게 그 보좌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v. 29). 1절이 말하는 주 야훼의 참 모습과 2절에서 언급하는 하늘에 견고히 세워진 그 모습은 이제 24절을 통하여 야훼의 대리인 다윗을 통해 드러난다. 사실 시편 89편의 찬송과 신탁이 놀라운 것은 야훼를 찬송하는 내용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신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sup>104)</sup> 야훼는 하늘 회중의 수장으로 89:6-7에 묘사되며, 시편 82:6에서 하늘 회중의 수장의 자격으로 지존자<sup>Most High</sup> (*‘elyôn*)로 불린다. 야훼는 다윗을 장자로 삼을 것이며 열왕 중의 으뜸 (*‘elyôn*)으로 만들 것이다 (v. 27). 장자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처음 난 자가 아니라 지고한 지위와 더불어 내려받게 되는 모든 특권과 복을 지닌 자를 뜻하며, 이것은 ‘으뜸’이란 말과 병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sup>105)</sup> 야훼가 하늘 회중의 지존자이듯 다윗은 열왕 중의 으뜸으로 모든 원수를 퇴패시킬 것이다 (vv. 22-23). 야훼는 그 손의 능력으로 (v. 13) 성난 바다를 다스리며 원수를 흠어버릴 것이다 (v. 9-10). 또한 다윗의 손을 바다에, 그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울 것이다 (v. 25).<sup>106)</sup> 다윗은 야훼의 대리인으로서 바다도 통치할 것이다. 야훼는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 들고 (v. 17), 자기의 이름으로 다윗의 뿔을 드높일 것이다 (v. 24). 그것은 원수들에 대하여 다윗 왕국을 높여 주리라는 약속인 것이다.<sup>107)</sup> 야훼와 다윗 계열의 왕 사이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시편 2:7에서 발견할 수 있고, 89:26에서 ‘주는 나의 아버지’라는 다윗의 외침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다. 천지의 창조주 야훼의 천상적 통치는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된다. 20-28절까지 다윗이 받은 약속은 29-37절에서 그의 후손들로 확장되는데<sup>108</sup>), 그것은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다윗의 보좌는 ‘해같이 항상 있어’ (v. 36) 장구할 것이다.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그 성실, 하나님이 하늘을 능력으로 다스림,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보좌를 굳건히 세워주겠다는 약속과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 자신은 언약을 어기지도 않으며 다윗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등에 대해 강력한 어조의 진술들이 나온다. 그와 같은 강력한 어조의 진술들을 접한 독자들은 비탄을 넘어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38-45절은 시편 89편의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 나오는 약속과 정확하게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왕이 세상의 열왕들 중 으뜸이 되기는커녕 그 왕좌와 왕관은 땅바닥에 처박혀버렸다 (vv. 39, 44). 다윗의 오른손은 바다와 강을 통치하지 못하고 대신 원수들의 손이 드높아져 버렸다 (v. 42). 다윗의 뿔은 승리하여 하늘 높이 올려지지 못하고 왕국은 패배의 굴욕을 당하였다 (vv. 43-44). 31-3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과 현재 왕국의 현실 사이의 부조화에 대해 다윗 언약 그 자체로 되돌아가 설명한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그 범죄를 벌하실 상황을 38-45절이 설명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름부음 받은 이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v. 38). 왕을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강력한 발언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왕을 징벌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그 성실이 아니라 기름부음을 받은 왕의 불신앙인 것이다. 46-51절의 질문들은 하나님이 다윗 가계에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에게 맹세하며 보여준 옛 시절의 영원한 인자를 보여달라는 부르짖음이다 (v. 49).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원칙과 진노를 거두고 (v. 46) 다윗 후손에게 다시 그 은혜로움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89편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들을 수 없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의 성취는 그저 소망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었다. 전체 시편 구조 그 자체가 그 소망을 살아 숨쉬게 하였다. 설령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시대는 과거지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름부음 받은 이를 통해 통치하리라 (시 2)는 확신도 무너졌으며, 의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 (시 72)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시편 89편의 질문들은 하나님이 일해줄 것을 요구한다. 시편 89편은 3권을 마무리하면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상황과 왕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다.<sup>109)</sup> 이 갈망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다. 전체 시편 4권과 5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한다. 4권은 모세의 시인 시편 90편으로 시작되는데, 이 시편은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시편 91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시편이라 할 것이다. 시편 93-100편은 야훼의 왕권 시편으로 분류되며 이 시편들은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sup>110)</sup> 또 다른 왕의 시편인 101편은 다윗 계열의 왕이 다윗 언약의 이상을 만족시킬 의무를 말한다. 그것은 왕이 회개하고 왕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면 징벌이 멈추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 101은 89편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으며, 시편 110편의 무대를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sup>111)</sup>

시편 89편에 표현된 소망은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야 성취되었다. 시편 89편을 그리스도와 연결짓는 방식은 다양하다. 야훼와 왕을 설명했던 주요한 사항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다윗이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장자요 이 땅 열왕들 중 으뜸이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장자로서 그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골 1:15). 창조 세계에서 지고한 지위를 갖고 지상의 왕들을 통치하는 이인 것이다 (눅 1:32; 계 1:5). 그는 바다를 다스림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자기 능력을 드러내며

(막 4:39), 영원무궁한 그의 보좌로 인해 다윗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눅 1:31-3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와 그 성질을 증명한다 (요 1:14; 14:6). 게다가 시편 89편에 표현된 고군분투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거부와 고난, 굴욕을 당한 왕으로 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38-44절에 나오는 왕에 대한 언급 중 상당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는 버림받고 거부당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분노를 내렸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주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삼았으며 원수들은 그 오른손으로 쳐 그를 굴복시킨 듯 보였다. 전체 시편의 구조에서 89편은 메시아가 일시적으로 거부당하고 고난을 받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후 왕의 시편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sup>112)</sup>

### 시편 110편: 왕-제사장의 승리

시편 110편을 해석하는데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배경의 구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들은 히브리 원문의 번역 상 까다롭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편 내의 특정 절의 실제 의미가 무엇이고 화자는 누구이며 그 화자는 어떤 이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지 등이 번역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 왕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의미 등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편 110편이 왕의 시편이라는 점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sup>113)</sup> 이 합의된 견해를 바탕으로 이 시편의 많은 세부내용들이 해석되므로 우리는 그 견해에 관한 주요 관점들이 시편의 세부 내용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sup>114)</sup>

시편 110편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의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 시편을 두 개의 신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신탁으로 나누면 두 종류의 구조가 드러난다. 즉, 각각의 구조는 신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sup>115)</sup> 첫

번째 구조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신탁으로 시작하는 1-3절이며, 두 번째 구조는 ‘너는 제사장이라’는 신탁으로 시작하는 4-7절이다. 이들 각 신탁은 아래의 표<sup>116)</sup>와 같이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신 탁	내 우편에 앉으라	너는 제사장이라 <sup>117)</sup>
상세화	내가 원수로 발등상 만들 때까지	멜기세덱의 반차
설 명	시온에서 나온 홀이 원수를 다스림	우편의 주가 원수를 파함
	자발적인 반응	확인에 찬 반응

시편 110편의 주요한 배경은 왕의 즉위식이나 실제 전투, 혹은 시편 117편의 종말론적 의미에 집중하는 문학적 맥락 등이다. 사람들은 왕의 즉위식 관점을 ‘가장 유명한 배경’이라고 불렀으며<sup>118)</sup> 1절과 4절이 예루살렘 성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왕을 다루는 듯 보인다는 점<sup>119)</sup>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 관점은 시대적 배경을 왕조 멸망 이전으로 본다.<sup>120)</sup> 이 즉위식 행사에서 화자는 ‘나의 주’에게 주 야훼의 신탁을 말한다. 왕 (나의 주)에게 주 야훼의 신탁을 전하는 화자는 선지자 혹은 성소에서 일하는 직무자이다.<sup>121)</sup> ‘내 우편에 앉으라’는 신탁은 왕이 즉위하여 영예의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이며, 이것은 그 왕이 모든 원수를 퇴패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sup>122)</sup> 이 첫 번째 신탁에 대한 설명 중에 나오는 시온에서 나오는 홀 ( v. 2)은 왕이 그 능력과 영향력을 확장하여<sup>123)</sup> 원수들을 다스리게 만들기<sup>124)</sup> 위해 주 야훼가 내려준 권력을 상징한다. 3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서 배경을 왕의 즉위식으로 보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크라우스는 3a절을 즉위식 날 왕을 지켜보던 귀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3b절은 신비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놀라운 왕의 탄생을 암시한다. 왕은 천상의 영역에서 잉태되었으므로 그에게는 천상적인 신적 기원이 있다는 것이다.<sup>125)</sup> 반면 앨런은 3절이 자원하여 전투를 왕과 함께 치렀던 사람

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산 위의 새벽 이슬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up>126)</sup>

그리고 왕의 즉위식 관점은 두 번째 신탁인 ‘너는 제사장이라’가 왕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사장 직분이 이제 왕에게 옮겨지는데, 왕은 이 직분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 전임자들에게 인수한다.<sup>127)</sup> 따라서 다윗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제사장 의복을 입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으며 제례의식에서 기도로 중재할 수 있고 여러 의식들을 주도할 수 있다 (삼하 6:14; 24:17).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다.<sup>128)</sup> 5-6절은 주<sup>the</sup> LORD (야훼)를 ‘주<sup>the</sup> Lord’ (아도나이)로 언급하면서 왕을 대신하여 모든 원수를 퇴패시키는 행위를 묘사한다. 비록 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이지만, 왕의 보좌이면에 있는 진정한 권세자이자 5-6절의 일들을 성취하는 이는 바로 야훼이다.<sup>129)</sup> 7절은 왕에 대한 묘사로 다시 돌아간다. 여기에서 왕은 잠시 멈추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 이것은 대관식의 일부로서 기혼의 샘물을 마시는 의식을 가리키며 (왕상 1:38), 왕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적 자원을 받는 신성한 수단이다. 왕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sup>130)</sup>

시편 110편이 실제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카이저는 시편의 배경이 되는 전투가 어떤 것이었는지 특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승리한 ‘결정적 전투’라고 부른다.<sup>131)</sup> 델리치는 다윗이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긴 전투라고 규정한다.<sup>132)</sup> 그 외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역사적 사실과 시편이 관련있다고 본다.<sup>133)</sup> 시편에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원수를 이긴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군사적 맥락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신탁을 전달하는 1절의 화자는 다윗 자신이다. 그는 자신이 ‘나의 주’라 부르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sup>134)</sup>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는 우편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는데, 그것은 지고한 영예의 자리이자 원수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자리이다.<sup>135)</sup> 시온에서 나온 홀

(v. 2)은 창세기 49:10의 유다가 받은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통치권을 상징한다.<sup>136)</sup> 3a절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자원하여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sup>137)</sup> 이 자원자들은 ‘거룩한 위엄’으로 진용을 갖추는데, 이것은 군대가 입혀준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으로 볼 수 있다.<sup>138)</sup> 3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 자원자들이 젊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새벽 이슬을 닦았으며, 이 표현 속에는 갑자기 나타나 생기 넘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이다.<sup>139)</sup>

두 번째 신탁인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를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시기에 맞춰서 볼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메사아를 직접적으로 언급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했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왕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왕이 성소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있었다 (대하 26:16-21). 이스라엘의 왕을 곧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겼다는 것은 성경적인 증거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적용 사례도 없다.<sup>140)</sup>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그것을 모형한다. 둘 다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으며, 그 두 제사장 직분은 레위 족속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수여한 것이다.<sup>141)</sup>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성취한 결과물로 인해 멜기세덱의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스가랴 6:12-13은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델리치는 이 성경 구절을 들어 시편 110편이 종말론적인 미래에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sup>142)</sup>

나머지 시편의 구절들은 메시아, 곧 제사장-왕인 메시아가 원수를 다스리고 자신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의 우편에 있는 주’라는 문구가 메시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sup>143)</sup> 주 야훼를 가리키는 것인지<sup>144)</sup>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주 야훼는 제사장-왕을 통해 심판을 시행하고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7절은 아마도 원수를 쫓던 왕이 시냇가에



멈춰 물을 마시고 원기를 찾고 제사장-왕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sup>145)</sup>

시편 110편의 배경에 대한 마지막 관점은 전체 시편의 최종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문학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제럴드 윌슨 Gerald Wilson은 자신의 저작을 통해 왕의 시편이 전체 시편 1-3권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밝혔는데<sup>146)</sup>, 이를 바탕으로 김진규는 4권과 5권에서도 왕의 시편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sup>147)</sup> 시편 110편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다 해도<sup>148)</sup> 문학적 맥락에서 볼 때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시편 107편은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다). 김진규는 시편 110편과 선지서 텍스트 (스 9-14장, 율 3-4장, 겔 34-38장)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 시편을 종말론적 장르로 새롭게 지정한다. 전체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에게는 종말론과 관련한 목적이 있었고 왕의 시편을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그 목적을 강조하였다. 왕의 시편은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편 110편의 종말론적 본질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편의 원래 의미와 신약에서 이 시편을 사용하는 신약성경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sup>149)</sup>

이 문학적 관점에서 시편 110편의 핵심 주제는 원수들에 맞서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전쟁과 야훼의 날에 당할 그 원수들의 패배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신탁에서 표제를 통해 화자가 다윗이라고 규정한다. 다윗은 신탁을 받고 직접적으로 종말론적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표현하며 그에 대해 말한다.<sup>150)</sup> 우편에 앉는 것은 메시아의 천상적 모임을 가리킨다. 다가오는 종말의 날에 야훼는 메시아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을 것이다 (v. 1). 이 왕이 야훼의 종말론적 임재의 장소인 시온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 2:8과 72:8가 실현된다는 의미이다.<sup>151)</sup> 종말론적 전투가 있을 이 날에 사람들은 자원하여 (v. 3a) 전장으로 나올 것이다. 시온으로 규정되는 ‘거룩한 산 위’라는 문구는 메시아가 종말론적 전투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 산 위의 ‘이슬’은 메시아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메시아 군대의 젊은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은유하는 것이다.<sup>152)</sup>

두 번째 신탁은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지시하고 그의 제사장 직분을 묘사한다. 그 직분은 아론의 것과 구별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겸하는 것이다. 5-6절은 장면이 바뀌어 다시 종말론적 전장으로 옮겨지는데 그 전장의 주체는 야훼이지만 언급되는 인물은 메시아이다. 메시아 우편의 주는 분노의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다. 7절을 통해 이야기 주체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이가 야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왕 메시아가 야훼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5-7절에서는 야훼의 행위와 메시아의 행위 사이에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절에서 물의 이미지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명을 주는 물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메시아는 종말론적 성전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온 생명수를 마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7절은 메시아가 원수를 이긴 승리감을 표현하며 시편을 마무리한다.<sup>153)</sup>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편 110편의 해석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들 관점들은 공통점들도 많다. 표제 (‘다윗의 시’)와 내용은 이 시편 110편을 예루살렘과 결부시키는데,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멜기세덱의 전통은 예루살렘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창 14:18-20).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왕위 계승을 위한 대관식 행사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이다.<sup>154)</sup> 그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시편 110편을 연결지을 때 생기는 문제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왕과 제사장의 겸직에 대해 말하는 시편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

윗 왕이 여부스 족속의 왕권을 이어받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왕과 제사장 겸직이 다윗 후손들에게 전수된 것은 아니다. 또 다윗 자신이 온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증거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시편 110편을 다윗이 직접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 보는 편이 훨씬 적절하다. 첫 번째 신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예언적 계시의 공식이자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로 소개된다.<sup>155)</sup> 다윗은 왕과 제사장을 겸직할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예언한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창 14:18-20) 멜기세덱을 예루살렘과 하나로 묶어 말하는 것은 미래에 임할 메시아에 대한 계시에 기반을 제공한다. 스가라는 이 개념을 자신의 선지서 6:12-13에서 차용한다. 110편이 전체 시편의 5권에 배치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담은 다윗 언약이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윗 언약의 약속은 시편 2편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이가 그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 주어졌고, 시편 72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 약속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편 89편은 이 약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보여주다가 시편 110편에서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sup>156)</sup>

시편 110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직접 지시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신탁이 이 시편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수는 스스로 1절을 성령이 다윗을 통해 한 말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마 22:41-46: 막 12:35-37).<sup>157)</sup> 첫 번째 신탁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의해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엡 1:20-21) 오른편 보좌에 앉아 있다 (행 2:34-35). 그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꿇게 할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통치하는 것이다 (고전 15:25).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

로 맹렬한 영적 전투에 참여한다 (시 110:3a; 엡 6:10-18).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때때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 (시 110:3b).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고 왕과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계 3:4).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 군대는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계 19:14).

두 번째 신탁 또한 신약성경은 인용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할 때 이 신탁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 계열이 아닌 (그는 유다 족속 계열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히 7:16) 드높은 지위를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소망을 품게 만든다. 예수는 일반적인 제사장과 차원이 다르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차원이 다르다 (히 7:26-28). 그는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는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히 7:24-25). 시편 110:5-6은 이 제사장 직분을 원수를 정복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예수의 제사장 사역이 모든 원수를 퇴패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이다. 그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확신하는 것 (시 110:7)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158)</sup>

### 시편 132편: 다윗 언약의 성취 - 왕권, 성전, 시온

하나님은 후손 중 하나가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있으리라 (v. 12)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였고, 132편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왕의 시편이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기쁨부음 받은’ 이를 대신하여 일을 한다 (v. 10, 17). 그리고 이 시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점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안식의 처소로 바꾸리라는 것이다.<sup>159)</sup> 이 두 가지 기본 개

님이 시편 132편을 구성하는 것이다. 비록 상이한 형태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섞여있긴 하지만,<sup>160)</sup> 주 야훼가 거할 처소를 건축하려는 다윗의 관심 (v. 5)과 후손에 관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적 약속 (vv. 11-12)사이의 병렬 관계를 이루는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 첫 번째 부분 (vv. 1-10)은 다윗 자신이 언약궤를 안치할 적절한 처소를 찾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맹세를 기초로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부분 (vv. 11-18)은 다윗의 후손에 관한 주 야훼의 맹세를 기초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반응을 내용으로 한다.<sup>161)</sup>

시편 132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10절로 그 틀이 만들어지는데,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한 기도로서 실제적인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절은 주 야훼에게 다윗이 언약궤를 놓을 장소, 곧 주 야훼의 처소를 찾느라 감내한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다. 2-5절의 내용은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찾고자 하는 바람에 관련하여 다윗이 한 맹세이다. 그는 야훼의 법궤를 위한 적절한 안치 장소를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6-9절에는 다윗이 야훼의 법궤가 놓일 적절한 장소로 옮기겠다는 맹세가 성취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서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있다. 첫 번째 부분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또다른 간구로 끝난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위한 다윗의 노력 위에서 ‘기름부음 받은’ 왕 (v. 10)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언약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언약궤는 주 야훼가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처’였다 (vv. 5, 7). 그것을 하나님의 ‘발등상’ (v. 7)이라 부른 까닭은 그가 그룹들 사이에 왕으로 앉아 있기 때문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을 상징했다.<sup>162)</sup> 그것을 ‘주의 권능의 궤’ (v. 8)라 부른 까닭은 그것이 전장에서 백성들을 앞서 이끌어 원수를 퇴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절의 ‘야훼여 일어나사’를 접하고서 민수기 10:35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문맥상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 곁으

로 모여들어 예배할 때 (v.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임재함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간구이기도 하다 (vv. 5, 13, 17). 이 시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2:5의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문제이다. 이것은 민수기 10:33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 (수 21:43-45). 그러므로 132:9은 하나님의 안식과 보호를 기억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이는 적절한 반응인 것이다.

다윗을 위하고 언약궤에 기울인 그의 열심을 대신하여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두 가지 탄원이 등장한다. 첫 번째 탄원은 ‘기억해달라’ (v. 1)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적 약속에 따라 일해달라는 요구이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연상을 넘어서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동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24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에 기울인 다윗의 열심을 기억함으로써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해 일할 것이다. 1절의 탄원은 10절에서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왕을 거부하지 마라 달라는 소극적인 기도로 언급된다.<sup>163)</sup>

이 기도는 11-1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후손이 보좌에 앉으리라 맹세한 내용 (vv. 11-12)을 언급함으로써 응답을 받는다. 다윗이 주 야훼에게 맹세했듯이 야훼도 다윗에게 맹세를 했고, 다윗이 주 야훼의 보좌에 열의를 가졌듯이 야훼도 다윗의 보좌에 열의를 보였다.<sup>164)</sup> 13-18절에 드러난 개념은 1-10절에서 나오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시편의 첫 번째 부분에 묘사된 다윗의 행동 이면에 주 야훼가 있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를 준행하려는 열심을 보여준다. 다윗은 언약궤가 안치될 장소를 찾아냈으니 그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거할 곳으로 선택했던 장소였다 (vv. 13-14). 시온은 하나님이 원하던 거처였던 것이다.<sup>165)</sup>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줌

으로 백성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v. 15). 9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한 가르침에 대해 16절이 이를 확인한다. 1-10절의 기도는 17-18절에서 응답을 받는다.<sup>166)</sup>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강성함 (뿔)이 회복하며 그의 왕국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등불처럼 빛을 발할 것을 약속한다.<sup>167)</sup> 면류관을 되찾고 수치로 옷 입은 원수들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도 응답할 것이며 그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역사적 배경과 시대를 두고 논쟁이 많지만,<sup>168)</sup>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134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전체 시편 5권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다윗 언약이나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치러지는 축제를 찾아온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일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시편들을 한데 묶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를 테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하는 점, 백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교훈하는 점, 일상의 문제와 국가적 관심사항을 나란히 놓고 생각하는 점 등이다. 이들 노래 대부분은 132편을 제외하면 간단하다. 시의 길이가 그만큼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맥락 상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sup>169)</sup>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체 시편 5권의 맥락에서 시편 132편은 메시아란 용어 (‘기름부음 받은’ vv.10, 17)를 두 번 사용한다.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용어는 다윗 계열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포로기 이후에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sup>170)</sup> 그러나 그 시편은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전체 시편의 문학적 맥락에서 132편은 89편에 기술된 메시아 거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시편 89:39에는 ‘기름부음 받은’ 왕이 모독을 받은 일에 대한 슬픔이 묘사된다. 그러나 132:18은 ‘기름부음 받은 이’의

면류관이 빛을 발할 것을 확인한다. 89:42에서 원수는 왕을 짓밟아 이기지만, 132:18은 원수가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말한다.<sup>171)</sup> 따라서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과 관련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준다. 한 왕이 임할 것이요, 한 뿔이 다윗을 위해 돌아날 것이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후손, 곧 그 보좌가 영원한 아들로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는 다윗을 위해 돌아난 뿔이다 (겔 29:21; 눅 1:69).<sup>172)</sup> 그리스도는 132:1-10에 나오는 기도의 성취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자기의 언약적 약속을 기억하고 ‘기름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만약 89편이 그 기름부음 받은 이의 비하를 가리키는 시편이라면 132편은 부활 (132:8)과 승천 (132:8, 14)과 관련된 비하 후 승리의 시편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132편은 왕권, 성전, 시온과 관계 있는 다윗이 받은 약속의 성취를 묘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부의 우편에 앉아서 행하는 그의 사역을 통한 성취인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처이면서 거처인 지상의 언약궤는 천상의 실재를 모형하는 것이었다 (히 8:1-6).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거하는 성전의 개념을 성취한 이로 이 땅에 왔다 (요 1:4). 그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며 (마 1:23) 자기 백성을 위한 참 안식의 제공자이다 (마 11:28). 그리스도는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는 천상의 성전에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한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퇴패시키고 그는 모든 원수가 무릎을 그 앞에 꿇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산으로 모였다 (히 12:22). 시온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전 14:25).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질 최후 승리와 온전한 안전과 안식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소리칠 것이다 (시 132:16). 천상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에는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은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계 21:2-5, 22). 어린양은 등불 (시 132:17)이 되어 그 영광을 광명으로 보일 것이며 (계 21:23), 하나님의 백성은 참다운 안전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 (계 21:4). 다윗과 맺은 언약적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시편 144편: 최후의 종말론적 승리

흔히들 시편 144편의 특징을 혼합적이라 말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있다는 뜻이다.<sup>173)</sup> 1-11절까지는 왕의 발언처럼 보이며 (v. 10) 하나님이 왕 자신을 이방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다 (v. 11). 12-15절은 1인칭 복수가 말하는 형태로서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다.<sup>174)</sup> 이 시편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 야훼인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송영으로 끝난다.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시편으로서 144편만의 독특한 특징을 시편 18편 및 전체 시편 내 배치 형태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sup>175)</sup> 시편 18편에서 완료된 구원에 대한 왕의 감사를 제외한다면 초반 11개의 구절에는 시편 18편의 내용이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더 구원해 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8편이 말하던 전쟁의 심상은 급박한 상황이 엿보이는 144편 전면에 옮겨진다. 비록 원래의 배경이 전투를 앞에 둔 왕의 간구였을지라도,<sup>176)</sup> 전체 시편 5권 내의 배치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이방에 대해 갖는 관심을 반영한다 (v.11). 시편 144편은 최종적인 다윗의 시편 모음집 (138-145편) 안에 위치하는데, 이 모음집의 내용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편은 그 왕을 통해 승리와 복을 바라고 소망한다. 이 미래의 소망은 종말론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전체 시편이 대단원의 막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 (149편 5-9도 반영하는) 최후의 종말론적 전투에 당게 되는 것이다.<sup>177)</sup>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로 인해 종말론적 축복이 부여되고 (144:12-15)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150편).

시편 144편은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어<sup>178)</sup>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언약적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vv. 1-11) 수많은 여러 요소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 시편의 시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주 야훼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전투에 필요한 능력을 왕이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이도, 열방의 백성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도 바로 주 야훼이다. 주 야훼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여섯 가지 신뢰에 대한 확언 속에는 주 야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표현되어있다 (바위, 인자, 산성, 요새, 건지는 자, 방패). 자신의 언약적 충실함 (인자)으로 인해 하나님은 전투 중에 왕을 안전하게 지키며 힘을 더한다. 궁극적으로 군사력이나 대단한 군사전략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 야훼의 능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왕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술되는데, 시편 8:4을 넌지시 언급한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8편은 인간이 창조 세계 중에 고등한 지위에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vv. 5-8) 4절을 통해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서 미천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시편 144편은 인간의 유약함을 분명히 말하면서 (‘숨결과 같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79)</sup> 어쩌면 4절은 속이기를 즐기는 원수들의 기만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v. 8). 시편 기자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어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vv. 5-8).<sup>180)</sup> 강력한 주 야훼의 임재는 원수를 물리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구원에 대한 마지막 요청 전 (v. 1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왕, 특별히 다윗 왕에게 준 과거의 승리를 송축한다. 승리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v. 9).

전투에서 얻은 승리는 또한 언약적 복이 부여되는 역할을 한다 (vv. 12-15). 이 구절들은 신명기 28:1-4이 말해준 복을 반영해 준다. 그 복은 삶의 전 국면에서 얻게 되는 풍족한 결실에 집중된다. 그중에는 건강한 자녀들, 풍성한 수확, 큰 무리를 이룬 양 떼, 마을과 성 중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안전 등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수를 퇴패시킬 때, 그들은 그 언약적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는 주 야훼와 맺은 언약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다.<sup>181)</sup>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복을 상기시키는 송영으로 끝을 맺는다 (v. 15).

다윗의 시인 144편이 전체 시편 5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다윗 언약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시편 모음집은 5권의 전체 틀을 구성하는데 (108-110, 138-145), 두 번째 모음집 바로 뒤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찬양의 시가 따라온다 (146-150). 또한 시편 2편과 144편 사이에는 인간들의 반역이라는 주제, 두 시편 모두 송영으로 끝을 맺는 것 등 여러 연속성이 있다. 시편 2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44편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의 최후 패배가 점점 가시화되는 형국으로 흘러간다.<sup>182)</sup> 오늘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산다.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 왕이 돌아오면 악한 세력은 최후의 패배를 맛볼 것이다. 우리는 유약한 인성을 지닌 왕이 낮아져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은 기만적인 원수들로부터 왕을 구해 달라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것과 일치한다 (vv. 3-4, 11).<sup>183)</sup> 우리 왕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첫 승리를 얻었고, 우리는 승리의 새 노래 (v. 9)를 부를 수 있었다. 우리 왕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이고 일정 부분 임시적인 복을 누리고 있지만 시편 144편이 말하는 복은 최후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이 부여할 것이다. 그는 신성의 완전한 영광으로 하늘의 권세를 지니고 온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내려와 모든 원수를 퇴패시키고 자기 백성에게 충만한 언약적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계 19:11-21).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론적 복을 풍성하게 받아 이를 즐거워할 것이다. 최후 승리로 받는 이 풍성한 복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합창할 때 (시 146-50편) 그들도 왕을 위해 충만하고 넘치는 찬양을 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므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 7장 왕의 시편

- 1) C. Hassell Bullock, *Encountering the Book of Psalms* (Baker, 2001), 178.
- 2) Ibid.
- 3) James Mays,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to the Psalm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7-20.
- 4) Bullock, *Encountering the Book of Psalms*, 178.
- 5) *Ibid.*, 182; see also Bernhard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rev.; Westminster Press, 1983), 192; J. Day, *Psalms* (OT Guide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7; Hans-Joachim Kraus, *A Theology of the Psalms* (trans. Keith Crim; Fortress Press, 1992), 123; and Claus Westermann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and Message*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0], 106. 시편 전체의 편집 형태를 고려해 볼 때도 왕의 시편이 놓인 위치는 왕권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 6) 왕의 시편을 독립적인 장르로 규정할 때 생기는 문제는 해당 시편들이 때때로 불만을 토로하는 시편, 감사의 시편, 찬송의 시편 등과 같은 장르적 범주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Herman Gunkel, *Introduction to the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trans. James D. Nogalski;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19). ‘즉위식 시편’ (47, 93, 96-99)과 ‘시온의 노래’ (46, 48, 76, 84, 87, 122, 132, 147) 등을 왕의 시편에 포함시킬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시편들은 찬송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어떤 학자들은 왕권이라는 주제를 전제로 하여 이들 시편을 논한다. 전자의 시편들을 야훼의 통치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후자의 시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 7) 왕의 시편에 대한 정의와 편수를 확대하려는 학자들이 일부 있다. J. H.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SCM Press, 1976])은 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편 속 인물이 참여하는 신년 축제에서 시편들이 하는 역할을 염두해 둔다면 더 많은 시편들을 왕의 시편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학자들은 시편의 대적들을 이방 국가들과 동일시할 때 왕의 시편 편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Day [*Psalms*, 89]의 주장을 보라). Kraus (*A Theology of the Psalms* [trans. Keith Crim; Fortress Press, 1992], 107)는 왕이라는 제재를 포함하지 않은 시편들, 혹은 그 제재에 대한 암시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시편들을 ‘왕의 노래’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 8) Tremper Longman (*How To Read the Psalms* [InterVarsity Press, 1988], 34)은 이들 시편을 왕권 시편이라고 부른다.
- 9) Bullock, *Encountering the Psalms*, 178.
- 10) Day, *Psalms*, 92-95.
- 11) J. Clinton McCann, Jr. (‘Psalms,’ in *New Interpreter’s Bible* [Abingdon Press, 1996], 4:691)은 ‘시편 2편의 선언 및 약속과 중대

- 한 해석적 과제를 남겨놓는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 12)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NCB; 2vols.; Eerdmans, 1972], 1:64)과 Hans-Joachim Kraus (*Psalms 1-150* [2 vols.; Continental Commentary; Fortress Press, 1993], 1:127)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한다.
  - 13) Kraus, *Psalms 1-150*, 1:127-28.
  - 14)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Word Books, 1983), 68.
  - 15) Craigie는 나중에 부여된 메시아적 의미는 시편의 원의 중 일부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Psalms 1-50*에서 시편 2편 [p. 68], 16편 [p. 158], 22편 [p. 202]에 관한 그의 주석을 보라). 그리고 문자비평적 접근법(2차 참조)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원리를 매우 강하게 드러낸다.
  - 16) 다음에서 J. H. Charlesworth의 논의를 보라. 'From Messianology to Christology: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Messiah* (ed. J. H. Charlesworth; Fortress Press, 1992), 3-35.
  - 17) 인간 저자로 제한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Walter Kaiser조차 모형론을 이해할 때 신적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The Uses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Moody Press, 1985], 102-103)..
  - 18) Dan McCartney and Charles Clayton, *Let the Reader Understand* (Victor Books, 1994), 153-55.
  - 19) 모형론은 알레고리적 해석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은 모형론과 달리 텍스트의 의미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모형론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발달과 여러 실례들의 통합에 좌우된다.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은 신적 저자에 좌우된다.
  - 20) Willem VanGemeren, 'Psalms,'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Zondervan, 1991), 5:66; see Also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Baker, 1990), 338.
  - 21) John Calvin, *Joshua: Psalms 1-35*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Baker Books, 1996), 4:9, 11.
  - 22) E. W. Hengstenberg, *The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Kregel Publications, 1970), 44-46.
  - 23) Walter Kaiser,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Zondervan, 1995), 99, and Robert L. Reymond, *Jesus, Divine Messiah* (Christian Focus, 2003), 78.
  - 24) Avraham Gileadi, 'The Davidic Covenant: A Theological Basis for Corporate Protection,' in *Israel Apostasy and Restoration* (ed. Avraham Gileadi; Baker, 1988), 158; see also Moshe Weinfeld, 'the Covenant Grant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AOS* 90 (1970): 184-203.
  - 25) 다윗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및 모세 언약과 분리할 수 없다. 사무엘하 7장은 이들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창 12:2), 약속한 땅에서 안전하게 뿌리 내리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 (창 12:3; 15:18; 신 11:24-25), 대적자들을 피해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 (신 12:9; 수 21:44-45) 등을 반영하는 것이

- 다. 각 언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O. Palmer Robertson, *Christ of the Covenants* (P & R, 1980), 27-66.
- 26) Jinkyu Kim, *Psalm 110 in Its Literac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135.
- 27) 모형론은 사건, 인물, 조직 등을 다루고 ‘좀더 온전한 의미’는 개념과 언어를 다룬다 (Douglas J. Moo, ‘The Problem of Sensus Plenior,’ in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s. D. A. Carson and John Woodbridge; Zondervan, 1986], 2002).
- 28) Calvin (Psalms 1-35, 9)와 Kaiser (Messiah, 97), 두 사람은 시편 2편을 주변 열방이 다윗에게 도전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한다. Franz Delitsch (‘Psalms,’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0 vols.; Eerdmans, 1978], 5:90)는 사무엘하 10:6의 다윗의 상황이 시편의 배경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히스기야나 웃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비록 반역행위가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열방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편 2편에 대하여 어떤 역사적 배경이 결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 충분하고 특별한 정보는 없다.
- 29) 이 관점을 언급하는 학자로는 Anderson (Psalms, 1:63)과 Kraus (Psalms 1-150, 1:126)의 주장을 지지하는 James Mays (Psalms [Interpretation; John Knox Press, 1994], 45)가 있다. Kraus는 이집트식 ‘세드 축제<sup>Sed festival</sup>’과 유사한 연례 즉위식 축제를 주장한다.
- 30)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3, n 27.
- 31) VanGemeran, ‘Psalms,’ 5:64.
- 32) Mays, *Psalms*, 46-47.
- 33) Mays, *Psalms*, 48; McCann, ‘Psalms,’ 4:4689; and Wilson, *Psalms Volume 1*, 107-08.
- 34) VanGemeran, ‘Psalms,’ 5:66.
- 35) McCann, ‘Psalms,’ 4:689.
- 36) 이 선포의 세세한 특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다윗 언약, 혹은 왕권의 특정한 면과 연결시킨다. Craigie (Psalms 1-50, 67)는 이 선포가 왕이 받은 사적 문서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한다. Kraus (Psalms 1-150, 1:130)는 이것을 왕의 합법성을 널리 알리는 왕의 의정서와 관련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VanGemeran (‘Psalms,’ 5:69)은 이 선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세세한 특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 37) Kraus, *Psalms 1-150*, 1:130-31.
- 38) VanGemeran, ‘Psalms,’ 5:70. Kraus (1:130-31)는 이스라엘인의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적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애굽인의 개념에서 보면 왕은 신이지만, 메소포타미아적 사상에서는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선포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 39) 7절의 ‘오늘날’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왕의 즉위 의식이나 왕위에 오르는 당일이라고 주장한다 (Craigie, *Psalms 1-50*, 67; Kraus, *Psalms 1-150*, 1:132; and McCann, ‘Psalms,’ 4:689).
- 40) 여호수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들을 붙였다는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 (6:2; 8:1; 10:19; 11:8). 그리고 야훼가 이스라엘을 위해

- 짜웠다는 기술도 있다 (출 14:25; 수 10:14).
- 41) Mays, *Psalms*, 51.
  - 42) Craigie, *Psalms 1-50*, 69.
  - 43) H. N. Ridderbos (*Matthew* [Bible Student's Commentary; Zondervan, 1987], 67)는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아들'은 예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직분에 따라 하나님과 맺는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는 공식적 직함이라고 주장한다. William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NICNT; Eerdmans, 1974], 57-58)은 반대로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즉위식을 넘어 예수의 신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두 관점은 예수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의 신성이 좀더 분명해질 것이란 공통점이 있다.
  - 44) Norval Geldenhuy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NICNT; Eerdmans, 1977), 146-47.
  - 45) Ridderbos, *Matthew*, 60.
  - 46) Wilson, *Psalms Volume 1*, 107.
  - 47) Lane (*Mark*, 319)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회막을 세우려 한다며, 그것은 아마도 예수가 준비 중인 고난을 건너뛰어 약속된 영광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48) John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Eerdmans, 1965], 9-11)는 바울에게 '아들'이라는 개념은 예수의 영원한 선재성과 그와 아버지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롬 9:5; 빌 2:6; 골 1:19, 2:9). 로마서 1:4에 사용된 문구는 부활 안에서 예수가 새로운 단계의 메시아적 주가 되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49) 이 관점의 주창자는 Kraus가 대표적이다. *Psalms 1-150*, 1:134.
  - 50) 시편 2:7을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보는 학자들에는 Hengstenberg (*Christology*, 44), Kaiser (*Messiah*, 99), Reymond (*Divine Messiah*, 78).
  - 51) Calvin, *Psalms 1-35*, 4:9, 11; see also VanGemeren, 'Psalms,' 5:66.
  - 52)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Baker, 1990), 338.
  - 53) Anderson, *Psalms*, 1:346.
  - 54) Wilson (*Psalms Volume 1*, 702)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sup>grace is poured upon your lips</sup>'이란 말에 대하여 은혜로운 언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재능으로 타고 났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 55) 히브리인들은 '두로의 딸'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 하지만 '딸'은 어떤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 표현과 '백성 중 부요한 자'가 병행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VanGemeren, 'Psalms,' 5:348).
  - 56) 시편 45편이 어느 왕의 혼인식을 기원으로 두는지 합의된 바는 없다. 솔로몬과 애굽 공주의 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Calvin, *Psalms 1-35*, 173) 유다 왕 여호람과 아달라의 혼인으로 보는 경우도 이다 (Delitzsche, 'Psalms,' 5:74). 시편을 재사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원래 어떤 혼인을 가리키는지 분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57) Kraus, *Psalms 1-150*, 1:452-55.
  - 58) Murray J. Harris ('The Translation of Elohim in Psalm 45:7-8,'



- TynBul 35 [1984]: 71-72, 75-77)는 이 두 가지 번역이 문장 구성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59) Craigie, *Psalms 1-150*, 337.
  - 60) Craigie (*Psalms 1-150*, 337)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구두점을 따라 히브리 원문의 구문론적 특성을 분명하게 살린다고 주석한다.
  - 61) Anderson, *Psalms*, 1:349.
  - 62) McCann, *Psalms*, 4:862.
  - 63) Delitzsch, 'Psalms,' 5:83.
  - 64) Mays, *Psalms*, 181.
  - 65)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67. 그도 역시 왕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주석한다.
  - 66) Delitzsch, 'Psalms,' 5:83; Mays, *Psalms*, 181; and McCann, 'Psalms,' 4:862.
  - 67) Delitzsch, 'Psalms,' 5:73.
  - 68) Craigie, *Psalms 1-50*, 340.
  - 69)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67. 그러나 그는 시편 45편이 그리스도와 모형론적 관계라고 말한다.
  - 70) Delitzsch, 'Psalms,' 5:74.
  - 71) McCann, 'Psalms,' 4:863 and Wilson, *Psalms Volume 1*, 710-12.
  - 72) Calvin, *Psalms 36-72*, 180-81.
  - 73) Kaiser, *Messiah*, 127 and Hengstenberg, *Chritology*, 50-51.
  - 74) Allan M. Harman,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Psalm 45:7,' in *The Law and the Prophets* (ed. John H. Skilton;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4), 186-87.
  - 75) Wilson, *Psalms Volume 1*, 720-03.
  - 76) Wilson (*Psalms Volume 1*, 720-03)은 행동의 주체가 모호한 까닭에 45편의 의미가 메시아를 향하여 발전한 것이라고 주석한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편의 본래 의미가 메시아적 의미를 향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저자는 6절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으나, 신적 저자는 어느날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정당히 불릴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 77) Ridderbos, *Matthew*, 185.
  - 78) 하객들이 받은 혼인식 예복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Hendricksen, *Matthew*, 797-98.
  - 79) Ridderbos, *Matthew*, 185.
  - 80) Mays, *Psalms*, 236.
  - 81) 이 명칭이 시편 72편을 솔로몬이 썼다는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동일한 명칭은 다윗이 원래 저자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Delitzsch, 'Psalms,' 5:298-299).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는 추기는 솔로몬의 저작설을 주장하는듯 보이는데 (Tate, *Psalms 51-100*, 222), 이는 다윗이 이 시편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 썼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Calvin (*Psalms 36-92*, 99-100)은 아들을 위한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이 시편에 운문으로 집어 넣은 것이 된다.
  - 82) Tate (*Psalms 51-100*, 222)는 이 추기가 나중에 좀더 큰 규모의 다윗 시편집에 합쳐진 초기의 다윗 시편집의 결론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 83) 시편 72편이 솔로몬을 위해 다윗이 지은 것이 맞다할지라도 이 시편은

- 아마도 다른 다윗 계열의 왕의 즉위식에서 재사용되었을 것이다 (Mays, *Psalms*, 236).
- 84)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FOTL; Eerdmans, 2001], 64-65)는 시편 72편이 빼어난 구조를 갖춘 것이 아니며 많은 주석가들이 어떤 확실한 구조를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 85) Kaiser, *Messiah*, 134. 어떤 학자들은 18-20절을 시편의 구조에서 제거하기도 한다 (McCann, 'Psalms,' 4:963).
- 86) 이 구조는 Knut Heim의 것을 참조하였다. 'The Perfect King of Psalms 72: An Intertextual Inquiry,' *The Lord's Anointed* (eds. E. Satterthwaite, Richard S. Hess and Gordon J. Wenham), 228.
- 87) Wilson (*Psalms Volume 1*, 985, n 5, and 993)은 1절이 시편 72편의 유일한 직접명령형<sup>imperative</sup> 문장이라고 지적한다. 나머지 간구들은 아마도 미완료형 ('he will')이라기보다는 간접명령형<sup>jussive</sup> ('may he') 형태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NIV에서 볼 수 있듯이 미완료형은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진술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완료형 중 어떤 형태들은 의미상 간접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특한 형태의 간접명령형이 시편 72:15-17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미완료형이 원래 문맥에서 간접명령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시편의 의미를 생각할 때, 미완료형은 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가리키는 진술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88) McCann, 'Psalms,' 4:963.
- 89) Calvin, *Psalms 36-92*, 103-04.
- 90) Tate, *Psalms 51-100*, 223-24.
- 91) 72:5의 도입부에 나오는 복수 동사는 많은 학자들에게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수정하여 '왕이 대대로 그리하기를<sup>may he continue</sup>'라는 번역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Heim은 해당 히브리 텍스트의 제 3 복수 동사를 변함없이 변호한다 ('Perfect King of Psalm 72,' 238-39).
- 92) Anderson, *Psalms*, 1:521.
- 93) Tate, *Psalms 51-100*, 225.
- 94) 이런 주장을 내놓는 학자들로는 Harman (*Commentary on the Psalms* [Christian Focus, 1998], 251-52), Hengstenberg (*Christology*, 57-62), Kaiser (*Messiah*, 133-34) 등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증언과 시편 72편의 약속이 평범한 다윗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에 그 근거를 찾는다.
- 95) Calvin (*Psalms 36-92*, 100)은 시편 72편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하는 시로 받아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들을 적용하여 자신들에게는 폭력적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해석을 내놓는다고 주장한다.
- 96) Mays, *Psalms*, 238.
- 97) Heim ('Perfect King of Psalm 72,' 245)은 72:8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오히려 이 구절 자체의 보편적 의미가 좀더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 98) Kim, *Psalms 110*, 109-10.
- 99) 19절이 'az ('then' in NKJV, 'once' in NIV)로 시작하고, 38절은 w<sup>e</sup>'attâh ('but now you' in the ESV, and 'but you' in the NKJV

- and the NIV)로 시작한다.
- 100) VanGemerem, 'Psalms,' 5:567.
- 101) 시편 89편의 배경에 대한 여러 많은 주장들이 있다. 바벨론식 축제인 왕의 죽음과 부활 의식과 유사한 축제를 제외한다면, 왕이 굴욕을 당하는 내용으로 인해 이 시편의 배경을 축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관점을 반박하는 주장으로 Tate, *Psalms 51-100*, 415를 보라). 심지어 Kraus (*Psalms 1-150*, 2:203)조차 시편과 축제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이 시편 89편은 왕이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포로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시편에서 포로기 시대에 대한 암시가 전혀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편 89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왕들이 있다. Calvin (*Psalms 36-92*, 418)과 Delitzsch ('Psalms,' 5:33-34)는 르보호암이 시편의 배경을 이루는 왕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Delitzsch는 시삭<sup>Shishak</sup>의 침공을 강조한다. Kraus (*Psalms 1-150*, 2:203)는 요시아 왕이 기원전 603년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계승자를 이 시편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Harman (*Psalms*, 306)은 시편 89:45의 언급을 일정 부분 근간으로 삼아 단명한 여호야긴 (기원전 597)을 이야기한다. McCann ('Psalms,' 4:1034)은 시편 89편의 기원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이 그 기원이라고 제안한다. 끝으로 Tate (p. 417)는 이 시편의 배경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상황이라고 말한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조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시편 89편이 표현하는 대로 신앙은 위기에 빠졌던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유사한 상황에서 시편들을 재사용하곤 했으므로 어떤 시편에 대해 시대를 특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 102) 1절에 나오는 *hesed*는 복수형이다. 이 어휘는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언약적 의무들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103) McCann, 'Psalms,' 4:1034. 3절에서 '영원한 인자'와 '성실'이 다윗 언약과 관련시켜 사용되지는 않지만, 2-3절에 동일한 동사가 교차적 대구법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세우다-견고히 하다-세우다 견고히 하다)은 이들 용어와 다윗 언약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04) Tate (*Psalms 51-100*, 423)는 야훼와 다윗 사이의 연결성을 목록화했다.
- 105) Tate, 425. Delitzsch ('Psalms,' 5:40)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태어난 자를 취하여 장자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든다고 말한다.
- 106) 바다와 강에 대해 실제 다윗 왕국의 경계와 관련된 지리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신화적인 언급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 핵심은 왕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적 통치를 하리라는 점이다 (Tate, *Psalms 51-100*, 423).
- 107) VanGemerem, 'Psalms,' 5:633 and Kraus, *Psalms 1-150*, 2:209.
- 108) Tate, *Psalms 51-100*, 424.
- 109) McCann, 'Psalms,' 4:1034.
- 110) Davi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Eisenbrauns, 1997).
- 111) Kim, Psalm 110, 117.
- 112) Kim, Psalm 110, 117.

- 113) Kraus, *Psalms 1-150*, 2:345 and Allen, *Psalms 101-150*, 83.
- 114)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시편 110편의 특정 배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떤 구절이나 절을 이해하는 방식들에 대한 세부사항들도 합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15) McCann ('Psalms,' 4:1130)은 110편 3절과 7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사실은 이 시편의 구조를 구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Kraus (*Psalms 1-150*, 2:346)는 시편 110편의 신탁을 세 가지 (vv. 1, 3, 4)로 보는 몇 안되는 학자들 중 하나이다.
- 116) 이 표는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2와 Harman, *Psalms*, 361를 참고하였다.
- 117) 두 번째 신탁이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시편 110편의 배경을 사독 (Anderson, *Psalms*, 2:771)이나 여호수아 (Gerstenberger, *Psalms, Part 2*, 266-67) 등의 대제사장의 임명식이라고 생각한다.
- 118) Allen, *Psalms 101-150*, 83.
- 119) Allen (*Psalms 101-150*, 84)은 이 시편의 내용을 무리하게 왕의 즉위식에 연결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시편이 단지 즉위식 행사를 묘사한 것일 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Kraus (*Psalms 1-150*, 2:347)는 이 시편이 연례 대관식 축제와 연관이 있다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확신한다.
- 120) Allen, *Psalms 101-150*, 79, 86)은 이 시편이 다윗 시대에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스 족속에게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시라는 것이다.
- 121) Allen, *Psalms 101-150*, 79 and Kraus, *Psalms 1-150*, 2:346.
- 122) Kraus, *Psalms 1-150*, 2:350. Allen (*Psalms 101-150*, 86)은 '내 우편에 앉으라'를 은유적으로 받아드린다. 즉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며 인간 왕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 123) Kraus, *Psalms 1-150*, 2:349.
- 124) Allen (*Psalms 101-150*, 80)은 명령형 '다스리라'를 확실한 결과에 대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 125) Kraus, *Psalms 1-150*, 2:350. 그는 3절 끝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의 청년들'이란 표현 대신 시편 2:7과 병행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슬이 왕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 126) Allen, *Psalms 101-150*, 86. Allen은 3절 끝부분을 '내가 너를 낳았다'로 수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110편의 구조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병행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3절 끝부분에서 야훼를 3인칭으로 언급하지 않고 1인칭으로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 127) Allen, *Psalms 101-150*, 87.
- 128) Kraus, *Psalms 1-150*, 2:351.
- 129) Allen, *Psalms 101-150*, 87 and Kraus, *Psalms 1-150*, 2:352.
- 130) Ibid. Allen이나 Kraus 그 누구도 이 시편의 원래 의미가 메시아와 관련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역사 속에서 통치했던 왕을 가리키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메시아와 관련된 의미는 이후에 발달한 개념이다.

- 131) Kaiser, *Messiah*, 95.  
 132) Delitzsch, 'Psalms,' 5:187.  
 133) Allen, *Psalms 101-150*, 83을 보라.  
 134) Kaiser, *Messiah*, 94.  
 135) 이 관점에서는 신탁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Kaiser, *Messiah*, 95; Delitzsch, 'Psalms,' 5:189;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2).  
 136) Kaiser, *Messiah*, 96.  
 137) Delitzsch, 'Psalms,' 5:191.  
 138) Kaiser, *Messiah*, 95 and Delitzsch, 'Psalms,' 5:191-92.  
 139) Delitzsch, 'Psalms,' 5:191.  
 140)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4. Delitzsch ('Psalms,' 5:192)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다윗은 제사장이 받는 십일조를 요구한 일도 없고 제사를 올릴 권한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141)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5.  
 142) Delitzsch, 'Psalms,' 5:194.  
 143) Kaiser, *Messiah*, 95 an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5-96.  
 144) Delitzsch, 'Psalms,' 5:194-95.  
 145) Delitzsch, 'Psalms,' 5:196 an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396. Kaiser (*Messiah*, 96)는 7절이 다윗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다윗이 시원한 물을 먹고 육체적인 원기를 찾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을 묵상하여 영적인 원기를 되찾기 위해 멈췄다는 것이다.  
 146)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colars Press, 1985).  
 147) Wilson은 1-3권 사이사이에 왕의 시편이 놓인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각 왕의 시편들 다음에 송영 형식의 시편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밝혔다. 김진규 (*시편 110*, 88, 93-94)는 핵심적인 왕의 시편들과 관련하여 4권과 5권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 그는 어떤 모듬의 끄트머리 정도에 왕의 시편이 위치하고 그 시편에 이어서 한 편 이상의 송영 시편이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은 한 모듬 (90-110편)의 말미에 놓이고, 그 뒤를 이어 송영 시편들 (111-118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김진규의 종합적인 제안을 수용하든 안하든 그는 전체 시편과 왕의 시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그 시편들이 다윗 언약이 발전해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148) Kim Jin-kyu (*Psalms 110*, 312)는 110편의 월 배경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의 왕권을 계승한 사건과 관련있다고 본다. 그리고 후대 왕들이 이 시편을 재사용하였다는 것이다.  
 149) Kim, *Psalms 110*, 126, 275, 294.  
 150) Kim, *Psalms 110*, 303, 315, 351. 비록 전체 시편의 문학적이고 최종적인 표현 방식 내에서는 다윗이 화자로 규정되지만, 김진규는 본래적이고 역사적 맥락에서는 다윗 왕에게 야훼의 신탁을 전달하는 왕실 선지자

- 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편 110편은 원래 다윗의 것도 아니며 종말론적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편의 본래 의미와 나중에 덧붙여진 종말론적 의미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은 간격을 이어줄 방법과 다윗이 성령으로 이 신탁을 말했다는 예수의 진술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려는 김진규의 시도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
- 151) Kim, *Psalm 110*, 317, 322.
- 152) Ibid. 329-330. 김진규는 3절에서 ‘거룩한 옷’ (hdr, הדר) 대신 ‘거룩한 산’ (hrr, הרר)으로 읽는다. 왜냐하면 옷보다는 산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 배경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온은 아훼의 날에 종말론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룩한 산 (시 2:6)으로 불린다.
- 153) Kim, *Psalm 110*, 336, 339, 346-49.
- 154) Allen, *Psalms 101-150*, 85.
- 155) Kraus, *Psalms 1-150*, 2:348 and Delitzsch, ‘Psalm,’ 5:189. 이 문구는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다. נַאֵם יְהוָה (*yhwh ne’um*).
- 156) Kim, *Psalm 110*, 296.
- 157) Ibid., 355.
- 158) 7절에서 시냇물을 마신다는 개념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병행하는 내용을 힘들게 찾으려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원수를 뒤쫓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과 원기를 회복한다는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절의 끝부분을 생각해 볼 때 승리는 이미 확실한 것이다.
- 159) 많은 학자들이 132편은 왕과 관련된 시온의 노래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음을 인정한다 (Allen, *Psalms 101-150*, 206; Kraus, *Psalms 1-150*, 2:474; McCann, ‘Psalms,’ 4:1213; and VanGemenen, ‘Psalms,’ 5:804)..
- 160) Mays, *Psalms*, 409-10을 보라.
- 161) 132편의 구조 분석과 각 부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Allen의 연구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Allen, *Psalms 101-150*, 204-06; Mays, *Psalms*, 412; and McCann, ‘Psalms,’ 4:1211.
- 162) VanGemenen, ‘Psalm,’ 5:807.
- 163) Harman, *Psalms*, 417-18.
- 164) Allen, *Psalms 101-150*, 205.
- 165) 동사 ‘원하다<sup>desire</sup>’ (*wh*, אָוַד)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품는 강렬한 열정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대단히 인격적 태도를 표현이다 (Allen, *Psalms 101-150*, 203, 210).
- 166) Allen, *Psalms 101-150*, 206.
- 167) 뿔과 등불은 모두 영구히 이어지는 다윗 왕국을 가리킨다 (VanGemenen, ‘Psalms,’ 5:809).
- 168) 많은 학자들은 시편 132편의 배경이 포로시대 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편이 다윗 왕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큰 고통을 당하는 암시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Allen, *Psalms 101-150*, 207). Calvin (*Psalms 93-150*, 143)과 Delitzsch (‘Psalms,’ 5:309)는 이 시편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나왔다고 믿는다. 그들이 보기에 아마도 역대하 6:41-42에 기록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전할 때 시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Allen (*Psalms 101-150*, 209)은 이 시편이 요시아 시대 이전에 나왔으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

오는 다윗을 재현하는 행사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Kraus (*Psalms 1-150*, 2:477)는 132편을 연례 궁중 축제와 연계한다. 다른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132편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체 시편 5권에 위치한다는 점과 132편이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McCann, 'Psalms,' 4:1211). 어떤 학자들은 후기 공동체 조직의 자취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적 소망 등을 강조한다 (Gerstenberger, *Psalms, Part 2*, 369). 그만큼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132편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조를 전제하고 있는 듯 하지만 17절은 다윗 계열의 왕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어떤 확실한 결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문학적 맥락이 원래의 역사적 맥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 169) McCann, 'Psalms,' 4:1210.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야훼의 시온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로 한데 묶을 수 있다는 분석은 다음을 보라. Philip E. Satterthwaite, 'Zion in the Song of Ascents,' in *Zion, City of Our God* (eds. Richard S. Hess and Gordon J. Wenham; Eerdmans, 1999), 105-28.
- 170) McCann, 'Psalms,' 4:1212.
- 171) Kim, *Psalms 110*, 297.
- 172) Delitzsch ('Psalms,' 5:316)는 시편 132편이 말하는 돌아나는 뿔이 가지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서의 구절들 (사 4:2; 렘 23:5; 스 3:8과 6:12)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구절들은 시편 132편이 메시아적인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173) Allen (*Psalms 101-150*, 289)은 시편 144편을 혼합 형태로 부르고, Gerstenberger (*Psalms, Part 2*, 427)는 찬양과 축복에서 시작하여 급박한 탄원, 불만, 서원에 이르는 요소들이 흥미롭게 혼합된 시편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Calvin (*Psalms 93-150*, 259)도 찬양과 기도가 섞인 시편이라고 말한다.
- 174) Mays, *Psalms*, 435-36.
- 175) 이어지는 논의는 다음을 보라. McCann, 'Psalms,' 4:1254-56 and Kim, *Psalms 110*, 135-36.
- 176) Allen, *Psalms 101-150*, 290. Delitzsch ('Psalms,' 5:379)는 70인 역의 표제를 수용하여 시편 144편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다윗이 한 기도로 본다.
- 177) McCann과 김진규 두 사람은 '종말론적'이란 용어를 시편 144편을 언급하는데 사용한다. 김진규는 종말론적 모티브를 강조하기 위해 시편 144편과 스가랴 14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 178) 12절은 'āšer란 어휘로 시작하는데, 이 어휘를 중심으로 시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 또 이 어휘는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 (VanGemeren, 'Psalms,' 5:859 and Harman, *Psalms*, 441).
- 179) McCann, 'Psalms,' 4:1255.
- 180) Kraus, *Psalms 1-150*, 2:542.
- 181) Harman, *Psalms*, 443.
- 182) 144편과 앞선 왕의 시편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cCann, 'Psalms,' 4:1256 and Kim, *Psalm 110*, 135-36.  
 183) 많은 주석가들은 2절의 '내 백성<sub>my people</sub>'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복수형인 '열방의 백성들<sub>peoples</sub>'로 수정하여 '열방의 백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이'로 번역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복종케 하다'라는 동사에서 느낄 수 있는 폭력성이 다른 열방들을 고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llen, *Psalms 101-150*, 287 and Kraus, *Psalms 1-150*, 2:542). Calvin (*Psalm 93-150*, 261)은 이 동사가 폭력적 지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왕국을 확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Delitzsch ('Psalms,' 5:381)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아직 다윗의 통치에 속하지 않았던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내 백성'으로 번역하는 히브리 어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해 두고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만적인 그리스도의 원수 대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섞여 있었으며, 그 원수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것이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